월남에도 센서 미작동 과학화 경계 '무용지물'

대한민국 동북단 22사단의 GOP(일반전초)가 지난 3일 또 뚫렸다. 2012년 10월 22사단 56연대 내륙1소초로 북한군이 노크귀순을 한지 8년 만이다. 군 당국은 광망센서와 중단거리 카메라 등이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설치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 편제인원 감축을 위해 도입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오류가 낳은 경계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작동하지 않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증가 초소 운용, 비상대기조 운용 등 경계태세는 최상의 단계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쯤 아군 GP(감시소초) 감시 장비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신원 미상 인원을 두 차례 포착했다 이에 따라 정보 감시 형태를 격상해 DMZ(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을 강화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다

軍, 과학화 경계 시스템 자부
철책선 센서 평소 오작동 많아
경계 소홀, 실패 비판 잇따라

다음날 오후 7시 TOD장비로 월책을 확인한 군 당국은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를 평시단계인 진돗개 셋에서 진돗개 둘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귀순자로 알려진 신원미상 북한 남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14시간 30분이 지난 4일 오전 9시 56분께였다. 북한 주민 신병이 확보된 위치는 GOP 철책 남쪽 1.5㎞ 지점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이었지만 민통선 인접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부전선에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했던 예비역 영관장교는 "철책선에 부착된 광망센서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데 평소 오작동이 많았다"면서 "태풍이나 폭우, 저온에서는 광망센서의 오작동이 심했다"고 말했다.

영하의 기온, 고도차로 구불구불한 한국의 최전방 철책에는 일정한 장력 유지가 어려워 광망센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 GOP 철책선의 유실 또는 파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크귀순과 같은 축선 아닐듯…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이번 경계공백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노크귀순이 있었던 곳으로 귀순자가 넘어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복수의 군 정보통들은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2사단은 내륙 경계를 맡은 55연대, 내륙과 민통선 이북 해안 경계를 맡는 56연대, 민통선 이남 해안경계를 맡는 53연대로 나뉘어져 있다.

통상 귀순자들은 동해안 연결도로가 발달한 56연대 우측의 해안인접지역을 따라 귀순했지만, 이번에는 산세가 험한 내륙쪽을 따라 넘어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륙 1소초에서 해안 1소초에 연한 지역은 평지와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귀순자는 14시간 동안 철책에서 1.5km 보다 더 먼 거리를 기동할 수 있다. 22사단의 좌단측으로 갈 수록 지세가 험하고 종심의 길이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일 발견된 귀순자 추정 인물이 비무장 지대 내 사용하지 않는 폐 GP에 은거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매 교시 칸막이 검사… 교실당 수험생 축소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책

시험실 인원 28명서 24명으로
블투이어폰, 전자담배 소지 안돼
마스크 관련 불응땐 부정행위 간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상황 점검 등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예년보다 철저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사상 초유로 수험생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책상 전면에는 가림막(칸막이)까지 설치되면서 다. 시험실에 28명씩 배정됐던 수험생 수는 24명으로 줄였고, 감독관이 매시간 칸막이 검사를 한다.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험생들은 휴대 금지 품목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은 특별히 숙지해야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시험실 배치 수험생 기존 28명→24명으로 축소…방역·부정행위 방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4교시 때는 응시 규정을 준수해 부정행위로 오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보다 시험 환경이 변화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우선,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 효과를 높이고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하고 동일한 시험실을 2회 이상 감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검사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탐구영역 정해진 시간에 한 과목씩

시험 시작 후에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 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경제'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스마트워치 금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현진 기자 lhj@

학교법인 덕성학원

'핸드 인 핸드 캠페인' 동참

안병우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 이사장이 연규홍 한신대 총장에게 보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들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다음 참가자로 연규홍 한신대 총장을 지목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안병우 이사장이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덕성학원

고려대

'AI선배'가 교양과목 추천

고려대가 지난 7월 국내 대학 최초로 학생 대상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양과목 추천시스템 'AI선배'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 것에 이어 11월부터는 머신러닝 기반의 제2전공(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탐색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대는 학생들에게 소속학과의 기본전공 외에 심화전공이나 제2전공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해 개설한 융합전공, 학생이 설계하는 학생설계전공을 포함한 88개의 제2전공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제2전공 탐색 서비스에는 경력개발센터의 취업 관련자료, 교수학습개발원의 학생활동실태조사 자료, 도서관의 대출자료 등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제2전공 선배들의 희망진로, 대출도서 등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학생들은 두꺼운 책자로 된 교육과정표가 아닌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에서 '제2전공 지도'를 보고 선택하거나 자신의 관심 키워드로 검색해 제2전공 간의 유사도와 차이도를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 '4단계 BK21 사업' 선정

빅데이터 분야에 데이터사이언스과

서울과학기술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의 빅데이터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4단계 BK21사업은 4차 사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7년간 2조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 선정된 빅데이터 분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 단위 8개 교육연구단이 선정됐으며, BK21 사업의 선정은 본 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 빅데이터 분야의 핵심 연구그룹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데이터사이언스와 비즈니스 포텐셜 교육연구단 (단장 이학연 교수)은 데이터사이언스 이론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모델 및 알고리즘을 교육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유연한 산업 적응력을 갖추는 온디맨드 (On-Demand)형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이론 및 방법론을 초점으로 하는 데이터사이언스 부문, 산업 응용을 초점으로 하는 비즈니스 포텐셜 부문, 학술 및 실무역량을 초점으로 하는 데이터 프로페셔널 부문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한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민·관협력으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분야 창업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동국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와 공동주관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보건복지부가(장관 박능후) 주최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과 SW중심대학협의회(회장 서정연)가 후원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복지 분야 빅데이터와 융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화 할 수 있는 창업아이디어 등을 공모한다. 전 국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복지분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뉴딜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정보원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 통계데이터 등을 활용하거나, 해당 데이터와 융합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화 할 수 있는 창업아이디어다. /이현진 기자